

코로나 이후 희망 설계 ‘광산미래수업’

메타버스·ESG경영·플랫폼경제…
전문가 토의·특강, 대응전략 발굴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부서가 자체 학습, 전문가와의 토의 등을 통해 탈·포스트 코로나 행복시책 및 대응전략 발굴에 나서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분정 44개 전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광산미래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역할을 준비하고 광산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광산구는 특히 탈코로나 행복시책인 ‘광산미래수업’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등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부서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 토의와 특강, 자문을 비롯한 서적, 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연구를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제와 아이템도 다양하다.

메타버스, ESG(지속가능발전) 경영, 플랫폼 경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을 넘어선 XR(확장현실) 기술 활용, 기후위기 극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ICT(정보통신기술)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통합돌봄인프라, 감염병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 인프라 확대, 예방중심 건강증진 체계 등 급변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화두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최근 광산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현실과 가상의 연결, 메타버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광산구청에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메타버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메타버스 세상에 광산구청사를 마련하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대응한 행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펼쳤던 광산시민수당, 광산형 푸드플랜, 사회적경제,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탈코로나 시대를 연계한 핵심 시책으로 발전시키려는 논의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과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광산구의 세

부 설계도 구성 등에 활용된다.

당장 내년 광산구의 주요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이번 학습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를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다가올 변화를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 시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참여하세요”

광주시, 9월1~14일 접수…최종 20팀 10월30일 경연

광주시는 “올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와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제28회째를 맞이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16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들 20명은 10월 15일과 29일에 각각 열리는 1, 2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치응용요리 부문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20팀이 10월 30일 경연대회를 치르게 된다.

전국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는 지정종목인 배추김치로 전통김치 전문가의 역량을 평가한다. 또 자유종목은 가문이나 지역에서 전승되거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선택김치로 전문성과 독창성,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대상인 대통령상(상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상(상금 1100만원)을 수여한다.

또 김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는 김치를 사용한 레시피의 독창성, 조리방법 편리성, 요리의 어울림 등 평가배점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해 광주시장상(상금 150만원) 등 총 7개 상(상금 600만원)도 수여한다.

올해 김치 경연대회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해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경연대회 규정 등 전반적인 대회 시스템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와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계김치축제 홈페이지와 광주세계김치축제 사무국(062-613-39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김치경연대회는 전국에 숨어있는 김치장인을 발굴하고 김치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며 “올해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이 돼 개최하는 만큼 김치 경연대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아농협, ‘농업인 방역 꾸러미’ 호평

영농현장·외국인노동자 지원

광주비아농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10일 광주비아농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농업인 방역 꾸러미’ 전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 방역 꾸러미’ 전달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예방 정책에 소외된 외국인 상시 고용 영농현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내 농가 60세대에 우선 전달되고 있다.

‘농업인 방역 꾸러미’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및 간단한 먹거리가 함께 동봉돼 있어 일선 영농 현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꾸러미를 전달받은 운남동의 한 농민은 “코로나19의 전염 예방에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준 농협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비아농협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지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자체 등과 도·농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비아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최고 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45000만원 상당의 농작물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실제 비아농협은 지자체 등과 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지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양파 30톤, 찰보리쌀 15톤 등을 판매하는 성과를 냈다.

비아농협 박홍식 조합장은 “코로나19가 영농현장의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두 형제 나눔실천 사랑방’ 광산구 선창경로당 개소

두 형제의 아름다운 나눔 실천으로 새롭게 마련한 광산구 신가동 선창마을 경로당(선창경로당)이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이귀순 광산구의원, 송상섭 선창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1970년대 지어진 기존 선창경로당은 시설이 낡고 노후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다.

형제기업인인 ㈜백인아이월 양광식 대표와 ㈜백인종합건설 양요식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신가동 478-3번지에 지상 1층(연면적 84㎡) 규모의 경로당을 건립하고, 광산구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 채납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양광식 대표와 양요식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상섭 선창경로당 회장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준 기부자와 광산구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백인아이월 대표 양광식은 “오래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기쁘고 뿌듯하다”고 화답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와 대구 수성구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만나 ‘행복동맹’을 결의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대구 수성구 ‘행복동맹’ 결의

다음달 자매결연 체결

광주 광산구와 대구 수성구가 월봉서원에서 만나 ‘행복동맹’을 결의하고, 다음달 대구 수성구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 수성구 방문단 13명이 자매결연 추진자 광산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영·호남화합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 수성구가 먼저 자매결연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방문단을 맞아 월봉서원에서 환영식을 가졌는데, 월봉서원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

인 성리학자인 고봉(高峰) 기대승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고봉 기대승은 퇴계 이황과 스물여섯의 나이 차에도 무려 13년간 치열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삼호 구정장은 “나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우리 조상의 정신을 광산구-수성구 간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월봉서원에서 이번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행사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영·호남의 상생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방문단은 환영식 이후 월당산공원 전망대로 이동하고, 수완동 일대를 돌아본 뒤 대구로 돌아갔다.

/최승렬 기자 srchoi@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